

## 총회 소식지 5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5월 8일 토요일 18시 10분 실비오 사시 신부가 총원장으로 재선출되었습니다. 그는 향후 6년 동안 성바오로수도회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새 총원장의 열기에 찬 첫 번째 육성을 간추려 봅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세계의 바오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여러분 전체를 통해 제게 보여준 신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무를 수락하는 지금 저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과 모든 바오로인들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수도회가 그저 서있는 데 그치지 않고 걸을 힘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인들은 유목민의 영성, 여정을 걷는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순간, 또는 어떤 관점에서 앉아 있거나 멈추어 있거나 과거에 대해 향수를 갖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며칠 동안 제 머릿 속에 자주 떠오른 말은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성체 조배를 하던 그 밤에 했던 “ 오늘날의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러한 사명의 정신을 지속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러한 사명의 시각으로부터 사도직 계획을 세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회헌이 말하듯이 총원장은 전체 수도회의 아버지이자 목자입니다. 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자부심을 갖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계속 걸어가는 수도회가 된다는 자부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수도회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구보다도 우리 말을 듣고 있는 젊은 사제, 평수사, 젊은 바오로인들에게, 나이든 형제들에게, 병든 형제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수도회는 모든 것, 모두를 필요로 하며 건강한 이나 교육받은 이나 잘 지내는 이에게 특전이 있지 않습니다. 수도회는 신비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오로인이라는 것이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총회의 일은 선거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총원장 선거에 앞선 며칠 동안과 7일(금요일), 8일(토요일)에 우리는 향후 6년간 수도회 차원의 계획으로서 우선 실행 과업과 일반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바오로가족의 다른 수도회, 재속회들과의 관계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오후에는 총원장과 총평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식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7일 금요일은 7시에 실비오 사시 신부가 총회 의장 자격으로 집전한 장엄한 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9시에 저희는 본회의장에 모여 성령을 청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대의원 각자는 엄숙하게 회헌이 규정하고 있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를 심판하실 주님 그리스도 앞에서 양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선출하기로 선서합니다.” 총회 의장과 개표위원 역시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세르타의 왕궁을 둘러본 주일의 휴식 뒤인 오늘 5월 10일 월요일, 저희는 총평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저희는 바오로가족의 형제 자매들이 올려 드리는 기도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는 분이 새롭게 두 분 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알렉산드로 세베로 공동체에서 5월 6일 목요일에 돌아가신 파울리노 캄파르모 수사님과 5월 9일 주일날 돌아가신 멕시코의 바오로인들의 큰 은인이자 성가정회의 회원이신 과달루페 구티에레즈 데 몬타우리올 부인이십니다. 주님 곁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억해주심에 계속 의지합니다.

아리차(로마) 2010년 5월 10일

홍보담당 비서 안토니오 리졸로 신부